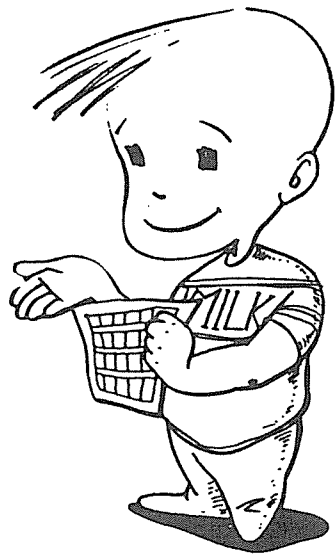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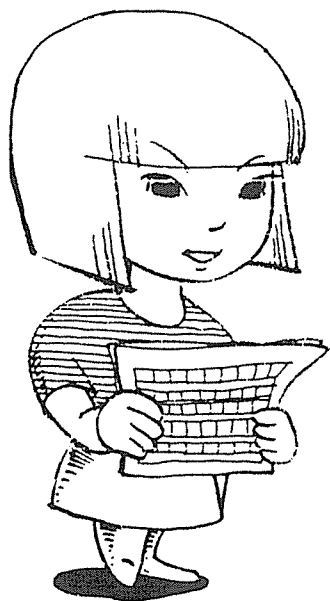
제10회  
어린이  
우유 장학금  
글짓기 대회  
입상작



한국유가공협회에서는 우유소비촉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의 글솜씨 향상을 위해 지난 85년부터 매년 “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열번째인 94년도에는 전국에서 총2천4명이 응모, 새싹회(회장 윤석중)에 심사를 의뢰하여 최우수상 1명, 금상 2명, 은상 5명, 동상 20명, 장려상 50명을 엄선하여 상장과 장학금(장려상은 부상)을 수여했다.

본지는 동상이상 28편을 4회에 나누어 게재한다.



## 최우수상

# 세 쌍둥이와 고마운 우유

정 현 지  
(진주 신안국교 4-2)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단풍이 울긋불긋 물들 때쯤이면 우리 세 자매의 생일이 다가온다. 나는 세 쌍둥이로 태어났다. 어머니께서는 우리를 낳으시기까지 몸이 몹시 무겁고 힘들어서 음식도 제대로 못 드셨지만 칼슘 부족을 막기 위해서 우유 먹는 일은 게을리하지 않으셨다고 한다. 다행히 우리는 모두 건강하게 세상 구경을 하게 되었지만 보통 아이들보다는 체중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었다.

특히 우리집 막내로 태어난 동생은 태어나서 몸무게가 1.3kg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많은 사람의 걱정을 한몸에 받았다. 하지만 우유를 열심히 먹어서 한달만에 몸무게가 2배 이상 불어나고 이제는 키도 우리만 하다.

나는 엄마 말씀을 들으면서 현선이가 우유를 먹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건강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새삼 우유가 고마워졌다.

어머니께서는 우리 생일이 다가오면 언제나 우리 어릴적 앨범을 꺼내보시며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나는 그 이야기를 얼마나 재밌고 신나게 들었는지 모른다.

우리들이 하루에 먹는 우유는 4,000ml나 되었는데 모유로 키울 수 없었던 어머니

께서는 우유가 없었더라면 도저히 키울 수 없었을 것이라고 늘 말씀 하신다.

엄마께서는 세 명의 아이를 한꺼번에 갖게 된 탓에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고 우리들에게 우유 주시는 일, 질병 소독하는 일로 10분도 앓을 시간이 없으셨다고 하셨다.

그런 어머니를 지켜준 것이 우유였다니 우리는 감사할 뿐이다.

우리가 조금커서 걸어다닐 때쯤 되니까 엄마께서는 우리를 한명씩 데리고 외출을 하셨다. 그때마다 가방 속에 멸균 우유를 몇개 넣어가지고 다니셨다.

어머니께서는 멸균우유가 있어서 어디를 가든 마음이 든든하셨다고 한다. 우리가 크면서 우유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옛날 심청이의 아버지 심학규는 청이에게 먹일 젖이 없어 온동네를 돌아다니며 젖동냥을 해서 키웠던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는가.

우유로만 큰 우리는 모두 건강하다. 물론 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말이다.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마시면서 치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어렸을 때 젖니가 썩는것을 막기 위해 우리 어머니는 가제수건으로 앞니 두 개가 닳을 때부터 닦아 주셨단다. 덕분에 우리 세 자매는 충치 하나 없는 건강한 이를 지니고 있다.

요즘 우리집에서 마시는 우유는 1,000ml 5개이다. 물 대신 거의 우유를 마시고 있다.

어느날 서울에 사시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 내가 사는 진주에 단풍 구경도 할 겸 우리 생일에 맞춰 내려오셨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는 우리를 아주 사랑하신다. 힘들게 태어난 우리를 보시면 모두 건강하여 예쁘다시며

“우리 송아지들아...”

하신다. 우유만 먹고 컸다고 사랑스러워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음매~ 외할아버지!”  
하고 대답한다.

나는 송아지여도 좋다. 우유가 고마울  
뿐이다.

금상

## 나는 우유대장

김 용  
(수원 서호국교 1-1)

나의 별명은 세 가지이다.

우유대장과 우유배달원과 송아지이다.  
우유 대장이란 별명은 내가 우유를 너무  
좋아하고 잘 먹기 때문이다.

어머니께서는 내가 밥을 잘 먹지 않는  
다고 걱정하시면서 우유라도 많이 먹으라  
고 냉장고에 우유를 많이 넣어 두신다. 사  
람들이 용이는 무엇 먹어서 저렇게 키가  
크냐고 하시면 우유를 잘 먹어서 그렇다  
고 대답하신다. 밥도 국 대신 우유에 말아  
먹고 물 대신 우유를 먹는것을 보고 사  
람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우유 배달원은 학교에서 우리반 아이들  
우유 급식을 우리 교실로 가져오는 당번  
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송아지란 별명이 붙은데는 재미있는 이  
야기가 있다. 사촌 형아랑 누나들하고 가  
족들이 야외로 놀러 갔을 때의 일이다. 들  
에서 젖소들이 노는 것을 보고는 짓궂은  
형아가 하는 말이 “용이야! 너의 엄마 저  
기 있다.” 하면서 젖소를 가리켰다.

나는 화가 나서 “젖소가 어떻게 우리  
엄마야?” 하면서 대들었다.

그러자 형아는 “용이는 매일 우유를 먹  
고 살잖아! 그 우유가 소 젖이라는 것을  
모르니? 그러니까 우유는 송아지가 먹는  
데 송아지가 먹을 우유를 용이가 대신 먹  
으니까 젖소가 용이 엄마고, 용이는 송아  
지래요.” 하면서 놀렸다.

나는 화가 나기도 했지만 변명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우유 배달하던 것이 생각났다.

“형아! 그러면 우리반 아이들이랑 우리  
나라 어린이들 모두 학교에서 우유를 먹  
는데 그럼 모두가 송아지란 말이야? 그리  
고 형아도 우유 먹은 적 있잖아. 그러면  
형아는 송아지 형아가 되겠네.” 하고 말하  
니까 웃으면서 “용이 머리는 못 당하겠는  
걸. 무얼 먹어서 저렇게 머리가 좋을까?”  
하였다.

나는 “그게 다 우유를 먹어서 머리가  
좋은 거라구요.” 하자 모두들 큰 소리로  
웃었다.

금상

## 몰래먹은 우유

이 무 선  
(서울 구정국교 4-5)

얼마 전 엄마와 함께 길을 가는데 수연이  
를 만났다.

“저 누나 누구니?”

“우리 반 친구예요”

“어머, 저렇게 키가 크니?”

엄마는 걱정스러운 듯이 나를 보셨다. 아  
마도 엄마의 눈에는 내가 솟다리로 보인것  
같다.

“애 우유좀 많이 마셔라! 성장기의 어린이는 우유를 많이 마셔야 빨리 큰단다” 하시며 냉장고에 늘 우유를 넣어 두지만 나는 우유보다 주스에 먼저 손이 간다.

“엄마가 어릴 때 애기 해줄께” 나는 귀가 솔깃해서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가 어릴 때는 우유 먹는 집이 많지 않았어. 잘 사는 집이나 특별히 건강에 관심이 있는 집 정도였지. 우리집은 너희 외할아버지의 당뇨병 때문에 우유를 먹기 시작했지. 지금은 종이팩으로 포장이 됐지만, 그때는 유리병으로 되어 있어서 보는 것만으로도 맛있게 생각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 책상에 갖다 놓는것이 내 일이었지. 그러다가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시면 얼른 안방으로 들어가 종이 뚜껑을 따서 살짝 마셔보던 기억이 눈에 선하다. 또 겨울에는 연탄난로 위에다 우유를 데우는 냄새가 집안 가득 고소하게 풍겼지. 그때마다 할머니께서는 “애, 조금만 먹어라. 아버지 약이다.”하고 말씀하셨어”

“너무 많이 마시면 어땠어요?” “그럴 때는 방법이 있지. 우유에 물을 부어 원래의 양만큼 만들어 놓는 거야. 저녁 때 할아버지께서 돌아오시면 「오늘 우유는 왜 이렇게 싱겁지.」하시며 드셨단다.”

엄마도 나처럼 말쑥꾸러기 시절이 있었다고 생각하니 웃음이 나왔다. 역시 우리는 모 전자전인가 보다.

나도 동생의 분유를 다 먹고 야단을 맞은 때가 있었는데……. 나는 얼굴도 못 뵈었지만, 말쑥꾸러기 딸 때문에 물 우유만 드신 할아버지가 참 불쌍하다. 그래도 할아버지가 식이요법을 잘 해서 다른 환자들보다 건강하게 사셨다니 기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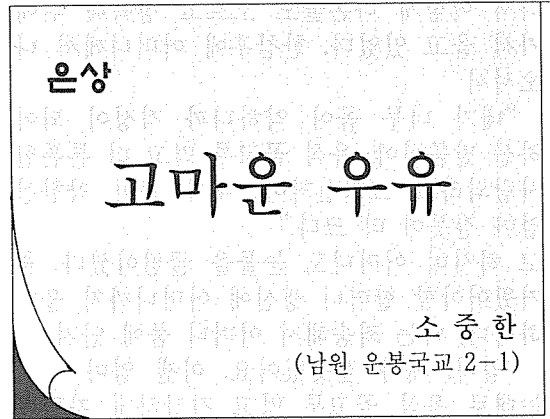
“엄마가 다른 아줌마보다 키가 큰 이유는 몰래 먹은 우유 때문이네요.”

“그럼”

“하하하”

“지금은 무엇이든지 넉넉한 세상이잖니. 얼마든지 많이 먹고 건강하게 크거라” 몰래

먹은 우유로 우리 엄마도 이렇게 컸는데 나도 우유와 친해져서 우리 엄마 소원인 룡다리가 되어야 겠다.



해마다 음력으로 2월12일이면 우리집은 일년중 가장 즐거운 날이다. 그날이 바로 우리 할머니 생신이기 때문이다. 일가 친척들을 만날 수도 있고, 온마을 노인들까지 오셔서 한바탕 잔치가 푸짐하게 벌어진다. 그래서 나는 설날만 지나면 할머니 생신을 손꼽아 기다린다. 잔칫상을 차려놓고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는데 내 차례가 되어서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사세요.”

하면서 절을 했더니 할머니께서는,

“그래, 우리 중한이 올해도 더욱더 공부 잘하고 밥 잘먹고 건강해야지.”

하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주위에 계시던 작은아버지 고모 등 친척들께서도

“중한이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서 우리 집안을 빛낼 것”이라고 칭찬해 주셨다.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싱글벙글 좋아하셨다. 나는 입학한 후 지금까지 시험을 볼때마다 전교과 모두 백점으로 전교에서 항상 일등을 하여 학력상, 그리기, 글짓기, 과학경진대회, 웅변등 교내대회와 남원시·군대회에서 26차례의 상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공부 잘하고 똑똑해서 칭찬받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뒷쪽에서 있던 작은엄마께서 들릴락 말락한 작은 목

소리로

“공부만 잘하면 필해. 몸이 튼튼해야지.”  
하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끄럽고 화가  
나서 어떻게 나온줄도 모르고 장독대 뒤에  
가서 울고 있었다. 한참후에 어머니께서 나  
오셔서

“네가 너무 몸이 약하니까 걱정이 되어  
하신 말씀이야. 음식 골고루 먹고 더 튼튼한  
사람되라고 그러신거야. 네가 몸이 약한건  
엄마 잘못이 더 크다.”

고 하시며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셨다. 즐  
거웠어야 할 할머니 생신에 어머니까지 울게  
하다니, 나는 죄송해서 어머니 품에 안겨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젠 엄마 시키  
는대로 음식 골고루 먹고 건강하게 자랄께  
요.”

하고 큰 소리로 말씀드렸다.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여쭙어 보았다.

“그야 즐겁게 생활하며 알맞게 잠자고 운  
동하고 음식가리지 말고 골고루 먹으면 되  
는데, 너는 항상 김치하고 밥만 먹는게 탈이  
야.”

“여러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다 먹을 수는  
없고, 우선 한가지씩 먹어야 하는데 한가지  
중에서도 영양소가 골고루 많이 들어있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나는 알면서도 여쭙어 보았다.

“그렇게 책을 많이 읽은 중한이가 그 정  
도의 상식을 모를까?”

“우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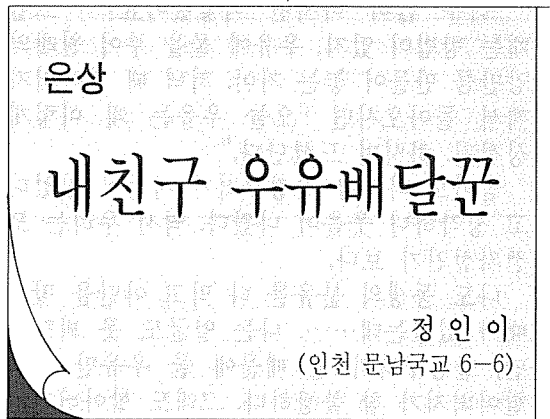
나는 자신있게 말했다.

“맞다, 맞아. 너 우유만 열심히 먹으면 다  
음 할머니 생신에는 지금보다 아마 6kg은  
몸무게가 더 나갈걸…….”

그전부터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우유를 먹  
으라고 성화이셨다. 그러나 우유에서 나는  
비릿한 냄새때문에 비위가 상해서 먹기가  
싫었다. 학교에서 신청한 우유급식도 먹은척  
하고 친구에게 주거나 화장실에 버리기 일  
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굳게 결심했다. 나

도 다른 아이들처럼 포동포동하게 살도 찌  
고 건강해야 공부도 더욱 잘할 수 있고, 우  
리 할머니 생신날 장독대 뒤에서 어머니랑  
우는 일도 없을것이 아닌가?

처음에는 하루에 우유 반컵 정도에다 포  
스트를 타서 밥 먹기전에 세번정도 먹었다.  
그리고 레스킵 마일로 등을 타서 양을 점점  
늘려 나갔다. 한달이 못되어 아무것도 타지  
않은 우유를 먹을 수 있었다. 이제는 하루에  
200ml짜리 우유 3개씩은 거뜬히 먹는다. 우  
유를 먹었더니 밥맛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비린내 나는 생선은 못먹었는데  
지금은 갈치 참치 고등어같은 생선도 잘 먹  
을 수가 있다. 모두가 우유를 열심히 먹은  
덕택이다. 이번 추석에 오신 고모도 내가 몰  
라보게 건강해 졌다고 칭찬해 주셨다. 하루  
에 1kg씩 우유를 먹기로한 내 목표가 달성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벌써부터  
할머니생신이 기다려진다. 그 날은 나와 우  
리 어머니가 우는 일도 없을 것이고, 우리  
작은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실지 궁금하다.



“어휴, 너희들 또 우유를 남겼구나. 어서 빨  
리 먹어라.”

뒤에서는 아직도 비워지지 않은 우유통을  
바라보며 외치는 선생님의 꾸중소리가 들려  
왔다. 하지만 내 책상 위의 우유곽은 벌써 깨  
끗이 비어있었다. 그 우유곽을 바라보던 난  
창 밖의 구름에 내 소중한 친구였던 우유배달

꾼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인이 너 또 우유 남겼구나.”

아직 손도 대지 않은 내 우유곽을 본 희선이  
이가 또 편잔을 주었다.

“내가 우유를 남기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  
이야? 너 정말 꼬치 꼬치 따질래?”

순간 난 갑자기 화가 나서 희선에게 소리  
지르고 말았다. 내가 우유를 싫어하는 걸 알  
면서도 자꾸 그러는 희선이가 미워졌기 때문  
이었다. 내 외침소리를 들은 희선은 고개를  
꼭 숙이고 교실 밖으로 나갔다. 그렇게 밖으  
로 나갔던 희선은 종이 치고 나서야 빨강계  
부은 눈으로 교실로 들어왔다. 유난히 마음이  
약한 희선의의 우는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아팠다. 미안하다고 사과할까 하다가도 난 용  
기가 없어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

“오늘은 우유 신청을 받겠다. 우유 마실 사  
람 손 들어 봐.”

벌써 다음달 우유 신청 때가 되었나보다.  
난 조금 망설이다 내게 우유를 강요하시는 엄  
마의 무서운 얼굴이 떠올라 손을 들었다. 문  
득 희선이 생각이 나서 희선을 바라본 난  
깜짝 놀라고 말았다. 늘 우리 반 모두에게 우  
유를 권유하던 희선이라 당연히 우유 신청을  
할 줄 알았는데, 희선은 그저 고개를 꼭 숙  
이고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이상한 생각  
이 들어 난.

“희선아, 너 우유 신청 안 해? 우유가 몸에  
좋다면서?”

하고 희선에게 물었다. 희선은 아무런 대  
답도 하지 못하고 엎드려 울어 버렸다.

그 다음부터 희선은 내게 신경을 쓰지 않  
았다. 우유에 관해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다.  
우리는 점점 서먹서먹해졌고, 난 우유를 거의  
매일 쓰레기통에 버리기 일쑤였다.

“어머, 쟈……”

희선과 싸운 후, 며칠이 지난 어느날 방  
과 후, 학원으로 향하던 난 그만 놀라서 발걸  
음을 멈추고 말았다.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바라보니 희선이였다. 바로 내 짝 희선이, 희  
선은 무거운 우유배달통을 밀며 우유를 배

달하고 있었다. 난 너무 당황한 나머지 희선  
이에게 한 마디 말도 못하고 근처 건물뒤로  
숨어버리고 말았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서야 난 희선이네 앞  
집에 사는 경희를 통해 희선이에 대해 물어보  
았다.

“인이 너 몰랐니? 희선이 아버지사업이 잘  
안 되셔서 그 애 어머니가 우유배달을 하시잖  
아. 그런데 요즘은 희선이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희선이가 배달을 다니고 있어.”

“어머 그랬니? 난 그런 것도 모르고……”

희선의의 속사정도 모르고 차갑게 대했던  
내가 너무 미워졌다. 희선이를 조금이라도 돕  
고 싶은 마음에 난 집으로 우유를 신청했다.  
비록 우유를 싫어하는 나였지만, 희선이를 위  
해 우유도 열심히 마셨다. 그리고 희선이와  
함께 우유배달도 하고 우유신청도 받으면서  
남는 우유 해결을 위해 우유를 밤 먹다시피  
하기를 며칠. 희선이와 난 꼬마 우유배달꾼으  
로 통하기 시작했다. 남는 우유를 매일 먹다  
보니 그렇게 싫던 우유가 꿀물보다 더 달고  
맛있게 느껴졌다. 해가 바뀌고 우리가 헤어지  
게 되었을 때, 희선이와 난 빈 우유곽을 선물  
하며 잊지 말자고 약속을 하기도 했다.

마음이 약했던 희선이. 그 해 희선은 내  
게 우유가 얼마나 좋은 식품인지를 깨닫게 해  
주었다. 희선이가 그렇게 권유하던 우유 덕분  
에 난 이렇게 건강해 졌으니…….

우유를 싫어하는 정화의 우유를 빼앗아 먹  
으면서 난,

“너 이렇게 좋은 우유를 왜 남을 주니? 우  
유를 마시면 얼굴도 예뻐지고 몸도 건강해 지  
는데……”

하며 정화에게 짧은 충고를 해 주었다.

‘이렇게 남에게 우유를 권유하게 된 내 모  
습을 보면 희선이가 뭐라고 할까? 분명히 기  
뻐해 줄거야.’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내 소중한 친구 우  
유배달꾼인 희선이가 금방이라도 달려와 밝게  
미소지어 줄 것만 같았다.

은상

## 먹보 아버지

최혜란

(옥천 삼양국교 6-6)

“할머니, 우유왔습시다.”

“아니, 웬 우유냐?”

어제 시골에서 올라오신 할머니의 분홍빛 저고리속에서 나온 가을의 향내가 어느새 집안을 가득 메웠다.

눈처럼 뽀얀 우유를 컵에 담아 가지고 온 나를 보며 할머니께서 물으셨다.

“이거요? 어머니 저녁하실 동안에 시장하실 까봐 가지고 온 거예요.”

“아이구, 이 할미 생각해 주는 사람은 우리 혜란이 밖에 없구나.”

“혜혜-”

할머니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나 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나는 쑥쓰러워 그냥 웃기만 했다. 어머니를 도와드리려 주방엘 가려는데 할머니께서 나를 불러 세우셨다.

“혜란아, 잠깐 여기 앉아라. 할머니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 줄께.”

“무슨 이야기요?”

“한 번 들어보거라. 너한테는 재미있고, 너한테는 조금 슬픈 이야기지.”

할머니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리고는 ‘할머니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궁금해 하고 있는데 할머니의 입이 살며시 벌어졌다.

“한 40년 전에 네 아버지를 낳았는데……”

이야기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어머니 진지 잡수세요. 많이 시장하셨지

요?”

“저녁 먹으라고? 잠깐 이야기 끝나고. 아니, 너도 같이 앉아서 듣거라.”

“뭘 들어요?”

“이야기요. 할머니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주신대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다시 시작되었다.

“한 40년 전에 네 아버지를 낳았는데 글썽 아주 덩치가 큰 우랑아였단다. 요즘은 아기를 낳으면 분유를 먹이잖아. 그런데 그 시절에는 그렇게 없어서 모유를 먹였지.”

“그런대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었다.

아버지께서 태어나시고 난 뒤에 아버지의 형님, 그러니까 나한테는 큰아버지께서 할아버지를 따라 풀을 베러 나간다고 낮을 붙들고 놓지를 얹아 그 것을 뺏다가 할머니의 젖꼭지에 낮이 떨어져 다치시게 됐다는 것이다.

“아휴, 저런. 많이 아프셨겠어요.”

“젖을 먹일 수 없어 힘들었지. 네 아버지는 우랑아라 젖도 많이 먹었는데 그 많은 젖을 어디서 얻어 와야하는지 앞이 캄캄하더라구. 그래서 네 증조할머니가 젖을 먹이기도 하고, 옆집의 젖소에서 짠 우유를 조금씩 얻어오기도 했어. 정말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단다.”

할머니께서는 이야기를 끝마치시고 한번 웃으셨다.

“참, 그래서 그런가?”

“아니 뭐가요?”

“네 아버지가 맨날 ‘배고프다. 배고프다’노래하는거. 어머니께서 젖을 안 먹여서 그런것 아니예요?”

“뭘? 흐흫. 그런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증조할머니께서 안 계셨거나, 우유가 없었으면 아버지는 진지를 금방 잡수시고 나서도 배고프시다고 하셨겠군요? 우유가 없었으면 큰일 났을 뻔 했네요.”

어머니께서는 가만히 웃고만 계시다가 다시 말을 이으셨다.

“우리 혜란아도 이제 우유 좀 많이 먹어야

겠구나.”

“아니 왜요?”

“너도 아빠같이 매일 ‘배고프다. 배고프다’하고 네 아빠 장단에 맞추니까!”

“어머니--.”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언제 들어 오셨는지 아버지께서 문앞에서 두리번 두리번 거리시며 냄새를 맡고 계셨다.

“참! 찌개를 없어 놓고 왔는데!”

후다닥 뛰어가시는 어머니의 모습뒤로 아버지께서 코를 막으시는 모습도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손을 코에서 내리시며 말 씀하셨다.

“아휴, 근데 배가 너무 고프구나. 헤란아, 빨리 주방에 가서 저녁 다 됐나 보고 오너라, 어서.”

“네, 히히히히.”

“왜 웃냐? 내 얼굴에 뭐 묻었니?”

“아니예요. 아무것도.”

“어? 우유아냐?”

우유컵을 집어드시는 아버지의 앞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께서 ‘역시 애비는 안돼’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그 다음날부터 우리집 냉장고에는 500ml가 아닌 1000ml의 우유가 들어앉았다. 배고프다는 소리의 주인공인 아버지와 나에게서 그 말을 없애시겠다는 굳은 어머니의 각오로 시작된 것이다. 그런 어머니의 각오로 시작한 했지만, 아직도 그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나는 학교에서 맨 앞에서 3번째로 서다가 지금은 10번째로 설 만큼 키가 컸다.

오늘도 아버지께서는 배고프다고 하시며 주방으로 뛰어 들어가셨다. 하지만 이런 먹보아버지가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 그리고 우유를 더 많이 먹어서 키도 더 많이 커야겠다.

은상

## 우유도둑과 어머니

탁 미 진

(진주 가람국교 6-4)

“어휴, 또 없어졌네.”

나는 또 화가 잔뜩 났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우유가 며칠전부터 매일 없어지기 때문이다.

우유배달원에 전화를 해보니 넣었다고 하는데 한, 두번도 아니고 여섯번씩이나 없어졌다.

나는 우유를 무척 좋아해 매일 아침 배달되

는 우유를 마셔야 하루가 시작된 기분이 든다.

그런데 며칠전부터 우유가 사라져서 하루종일 서운함을 금할 수가 없었다.

“누군가 배고픈 사람이 먹었을테지. 자기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엄마는 언제나 같은 말을 하셨다.

그렇지만 엄마의 기대에도 아랑곳없이 우유는 자꾸 사라졌다.

아침마다 울상이 되어 있는 나를 보고 엄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

“그래, 그렇게 해보자.”

엄마는 손뼉을 치시며 글을 적으셨다.

‘우유를 가지고 가시는 분께.

저희집 아이가 우유를 무척 좋아합니다. 당신을 생각해 우유 두개를 부탁했으니 사양 말고 하나를 드십시오’



내용은 이러했다.

괜히 남에게 돈을 쓰는 엄마가 못마땅해 나는 입을 삐죽거렸다. 하지만 엄마는 그 종이를 문앞에 붙여놓고, 우유배달원에 전화를 해서 한개 추가를 부탁했다.

내일은 문앞에 우유하나가 놓여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딩동, 딩동”

새벽 5시.

한참 꿈나라를 헤매고 있을때 요란한 초인종소리에 우리가족은 모두 일어났다.

문을 열어보니 처음보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

“넌, 신문배달하는 아이 아니니?”

“죄송해요, 아주머니…….”

우리 가족은 서로를 멍뚱멍뚱 쳐다보기만 했다.

그 아이는 우리집에 들어와서 우유를 훔쳐먹은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 아이의 집은 너무 가난해 자기가 직접

신문배달을 하는데, 우리집을 문득 지나다 보니 우유가 놓여있어서 순간적으로 한번은 마시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것인것처럼 저절로 우유에 손이 갔다며 뜨거운 눈물을 뺨위로 흘려 보냈다.

“그렇지만 남의 것을 훔친 것은 잘못된 것이지. 정 우유가 먹고 싶으면 아줌마 집으로 오려므나. 언제든지 준비해 줄테니…….”

엄마는 자상하게 말씀하시면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우유한잔을 그 아이에게 내밀었다.

나는 화가 잔뜩 나서 그 아이를 경찰서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엄마의 침착한 행동에 나도 모르게 동정이 갔다.

그날 이후, 우유가 다시 사라지는 일도 없었고, 엄마는 그 아이를 위해 매일 새벽 한잔의 우유를 준비해 두신다.

우유가 먹고 싶어 훔쳐먹기까지 한 아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 갈슘, 철분, 비타민등이 많이 들어있는 우유를 더 즐겨먹기로 나는 다짐했다.

